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반응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요인

김종임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tress Response on Their Problem-solving Skills

Jong-Im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반응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도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였고, 분석대상은 149명 이었다. 자료는 기술적 통계,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beta=-.198, p=.002$), 전공만족도($\beta=.018, p=.032$), 대인관계($\beta=-.093, p=.080$)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19.7%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과의 관련성에서는 성별, 전공만족도, 대인관계,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문제해결능력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생활스트레스($r=-.369, p<.001$), 임상실습스트레스($r=-.327, p<.001$), 스트레스 반응($r=-.24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를 높일 수 있는 학과 특성 프로그램 적용 및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문제해결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tress associated with the daily life and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and stress response of the students, on their problem-solving skills. The survey was performed in a certain province from March to April 2021, enrolling 149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Gender of the participant ($\beta=-0.198, p=0.002$), satisfaction with the major ($\beta=0.018, p=0.032$),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a=-0.093, p=0.080$)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blem-solving skills,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19.7%. Moreover, the associ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roblem-solving skills with gender, satisfaction with the maj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revealed considerable differences, whereas stress resulting from daily life ($r=-0.369, p<0.001$), stress associated with clinical practice ($r=-0.327, p<0.001$), and stress response ($r=-0.249, p<0.001$) had a statistically negative correlation with problem-solving skills. In conclusion, data obtained from this study reveal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olv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there is a necessity to provide programs that help increase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trengthen the problem-solving skills by considering sexual characteristics.

KeyWords : Clinical Practice Stress, Life Stress, Nursing Student, Problem Solving Ability, Stress Respons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Jungwon University Research Grant(과제관리번호: 2020-036)

*Corresponding Author: Jong-Im Kim(Jungwon Univer)

email: jikim17@jwu.ac.kr

Received April 12, 2021

Accepted July 2, 2021

Revised May 4, 2021

Published July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복잡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의료환경 속에서 간호사는 대상자들의 건강 문제를 사정하고 각 개인에게 적합한 간호 제공을 위해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1]. 문제해결능력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 하나로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주어진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하며[2], 간호의 질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3]. 그러나 미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과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러한 자신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4].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과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관심과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원에 대응하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행동반응으로 나타나는 긴장상태를 말하며, 이는 정신질환의 원인적 요인으로도 작용한다[5]. 또한, 스트레스는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 관계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축적되면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유발시키거나 대학생활에 불만족과 부적응 및 기존장애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전반적으로 작용[6]하기도 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학생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임'이 45.2%, '매우 느낌'이 8.8%로 대학생의 54%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7],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원인으로 Chu와 Im[8]은 가치관 문제, 학업문제, 장애문제, 경제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적용해 볼 때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의 역할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낮은 병원 환경에서의 임상실습 등은 학생들에게 높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9], 전공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한다[10]. 이러한 갈등과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의 당연한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여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저하되므로[10],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스트레스 반응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거리로 인해 축적되는 스트레스 상태가 신체나 심리, 행동,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정신, 신체 증상을 말한다[11].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

으로는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좌절 반응과 신체적, 신경계, 소화기, 정서적 증상을 증가시키는 반응이[12] 나타나며, 학업과 임상실습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3] 스트레스 반응으로는 분노, 불안, 피로, 우울과 자살 등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은 대학에서의 일반적인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함과 동시에 임상실습을 병행하고 있어, 두 가지 차원의 스트레스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다[13]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반응과 문제해결 능력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이란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거나 파악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14]으로,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문제해결 자신감, 접근-회피양식, 개인 통제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5].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16],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은 의료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며, 필수라 할 수 있다[16]. 즉, 간호대학생은 실무문제를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협동학습, 사례연구, 프로젝트 학습 등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이나 시뮬레이션 실습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 등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방법으로 시도 되고 있다[16].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문제해결능력[17], 스트레스 대처의 기제와 적응능력[18], 간호대학생의 학업이나 취업 스트레스[19], 문제 극복력[20] 등을 통하여 스트레스와 극복관련을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며,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과 문제해결능력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 정도 및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스트레스 관리 및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 문제해결능력의 분포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 문제해결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 문제해결능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기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 소재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 중인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서를 받고 자가 보고식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불참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연구도중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연구목적 이외에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음을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한 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21]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기준으로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중간 정도인 0.15, 예측변수 6개를 포함했을 때,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46명이 요구 되었으며, 예상한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60부를 배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157부 이었고, 그 중 설문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모두 제외한 14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일반적 특성, 생활스트레스 및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 문제해결능력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년, 전공만족도, 대인관계, 학과 지원동기, 임상실습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2.3.1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Yoo 등[22]이 개발한 간호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생활스트레스는 총 39문항으로 하위영역은 개인 내 15문항, 개인 간 5문항, 학업 10문항, 환경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는 1점, '매우 많이 경험한다'는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전체 대학스트레스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4였고, 각 하위 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개인 내 .89, 개인 간 .78, 학업 .90, 환경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3이었고, 각 하위 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개인 내 .87, 개인 간 .79, 학업 .91, 환경 .80으로 나타났다.

2.3.2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Yoo 등[22]이 개발한 간호대학생 임상실습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총 20문항으로 하위영역으로 실습대상자 8문항, 임상환경 4문항, 실습지도자 5문항, 실습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는 1점, '매우 많이 경험한다'는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2였고, 각 하위 영역의 실습대상자, 임상환경, 실습지도자, 실습생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3-.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2 이었고, 하위영역의 실습대상자 .83, 임상환경 .89, 실습지도자 .88, 실습생 .86으로 나타났다

2.3.3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Koh등[23]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감정적, 신체적, 인지

적, 행동적 반응들이 포함된 측면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 긴장 6문항, 공격성 4문항, 신체화 3문항, 분노 6문항, 우울 8문항, 피로 5문항, 좌절 7문항으로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전체의 Cronbach's α 값은 .97이었고, 각 하위 영역의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좌절의 Cronbach's α 값은 .76-.91의 범위 안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의 Cronbach's α 값은 .96이었고, 각 하위 영역의 Cronbach's α 값은 긴장 .89, 공격성 .84, 신체화 .87,

분노 .87, 우울 .91, 피로 .84, 좌절 .93으로 나타났다.

2.3.4 문제해결능력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Heppner와 Petersen[24]이 개발한 척도(Problem Solving Inventory: PSI)를 Im 등[15]이 번안하고, Joo 등[25]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영역으로 문제 해결 자신감은 11문항, 접근-회피 양식 16문항, 개인통제력 5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49)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29	19.5
	Female	120	80.5
Age(yr)	≤20	2	1.3
	21-22	50	33.6
	23-24	76	51.0
	≥25	21	14.1
Grade	Junior	74	49.7
	Senior	75	50.3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6	10.7
	A little satisfied	58	38.9
	Common	58	38.9
	A little unsatisfied	13	8.7
	Very unsatisfied	4	2.7
Human relationship	Very good	17	11.4
	Good	95	63.8
	Usually	34	22.8
	Bad	3	2.3
Department Support Motivation	Consider credit	6	4.0
	Parental Invitation	31	20.8
	Consider employment rate	43	28.9
	Aptitude and Interest	41	27.5
	Professional	28	18.8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ery good	5	3.4
	Good	61	40.9
	Usually	59	39.4
	Bad	20	13.4
	Very bad	4	2.7
Course Credits	Top level (up to 30% of top)	39	26.2
	Midrange	77	51.7
	Lower level (less than 30%)	33	22.1
Total		149	100.0

.88, 하위 영역으로 문제해결 자신감 .82, 접근-회피 양식 .83, 개인통제력 .6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9이었고, 하위영역으로 문제해결 자신감 .84, 접근-회피 양식 .83, 개인통제력 .65로 나타났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반응, 문제해결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는 t-test, ANOVA,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나이, 학년,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학과 지원동기, 임상실습만족도, 성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29명(19.50%), 여자가 120명(80.5%)이었으며, 나이는 23-24세가 76명(51.0%)으로 가장 많았고, 21-22세는 50명(33.6%)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3학년 74명(49.70%), 4학년 75명(50.3%)이었으며. 학과만족도는 '만족 한다' 58명(38.98%), '보통' 58명(38.9%)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좋음' 95명(6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에서도 34명(22.8%)순으로 나타났다. 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률'이 43명(28.9%)으로 가장 높았고, '적성과 흥미' 41명(27.5%)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만족'이 61명(4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 59명(39.4%)으로 나타났다. 성적에서는 '상위권' 39명(26.2%), '중위권' 77명(51.7%)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2. Level of Life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Respons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N=149)

Variables		M±SD	Item score	Range
Life Stress	Individual stress	35.77±11.93	(2.38)	15-75
	Interpersonal stress	9.75±3.11	(1.95)	5-25
	Academic stress	29.72±7.23	(2.97)	10-50
	Environmental stress	21.97±6.98	(2.44)	9-45
	Total	99.63±26.12	(2.76)	39-195
Clinical Practice Stress	Training subject stress	17.01±7.59	(2.12)	8-40
	Clinical environment stress	9.72±3.60	(2.43)	4-20
	Practice Leader Stress	11.81±4.40	(2.36)	5-25
	Trainee stress	7.41±2.74	(2.47)	3-15
	Total	45.99±16.16	(2.29)	20-100
Stress Response	Tension reaction	12.99±5.66	(2.16)	6-30
	Aggressive reaction	7.83±4.63	(1.97)	4-20
	Somatization reaction	6.57±3.20	(2.19)	3-15
	Anger reaction	13.24±6.11	(2.28)	6-30
	Depressive reaction	17.57±7.58	(2.19)	8-40
	Overworked reaction	12.11±4.54	(2.42)	5-25
	Frustrated reaction	16.55±6.57	(2.36)	7-35
	Total	86.74±35.55	(2.22)	39-195
Problem Solving Ability	Confidence in problem solving	41.87±7.73	(3.80)	11-55
	Approach Avoidance Form	53.10±7.92	(3.31)	16-80
	Personal control	13.31±3.94	(2.66)	5-25
	Total	108.30±15.44	(3.38)	32-160

3.2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 문제해결능력의 수준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반응, 문제해결능력의 평균값을 측정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생활스트레스에서는 점수범위 39-19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99.63 ± 26.12 이며(5점 척도 환산점수 2.76), 하위영역으로 '개인 내 스트레스'의 점수 범위는 15-75점으로 평균값은 35.77 ± 11.93 (5점 척도 환산점수 2.38), '개인 간 스트레스'는 점수범위가 5-25점으로 평균값은 9.75 ± 3.11 (5점 척도 환산점수 1.95), '학업스트레스'는 점수범위가 10-50점으로 평균값은 29.72 ± 7.23 (5점 척도 환산점수 2.97), '환경 스트레스'는 점수범위가 9-45점으로 평균값은 21.97 ± 6.98 (5점 척도 환산점수 2.44)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p < .001$).

임상실습스트레스에서는 점수 범위 20-100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45.99 ± 16.16 으로(5점 척도 환산점수 2.29) 나타났다($p < .001$). 하위영역으로 '실습대상자 스트레스'의 점수 범위는 8-40점, 평균값은 17.01 ± 7.59 (5점 척도 환산점수 2.12), '임상환경 스트레스'의 점수범위는 4-20점, 평균값은 9.72 ± 3.60 (5점 척도 환산점수 2.43), '실습지도자 스트레스'는 점수범위 5-25점, 평균값은 11.81 ± 4.40 (5점 척도 환산점수 2.36), '실습생 스트레스'의 점수범위는 3-15점으로 평균값은 7.41 ± 2.74 로(5점 척도 환산점수 2.47)로 높게 나타났다($p < .001$).

스트레스반응에서는 점수범위 39-195로 전체 평균값은 86.74 ± 35.55 (5점 척도 환산점수 2.22)이며, 하위영역으로 '긴장반응'의 점수범위는 6-30점으로 평균값은 12.99 ± 5.66 (5점 척도 환산점수 2.13), '공격성 반응'의 점수범위는 4-20점으로 평균값은 7.83 ± 4.63 , '신체화 반응'의 점수범위는 3-15점으로 평균값은 6.57 ± 3.20 (5점 척도 환산점수 1.97), '분노 반응'의 점수범위가 6-30점으로 평균값은 13.24 ± 6.11 (5점 척도 환산점수 2.28), '우울반응'의 점수범위는 8-40점으로 평균값은 17.57 ± 7.58 (5점 척도 환산점수 2.19)로 나타났다. '과로 반응'의 점수범위가 5-25점으로 평균값은 12.11 ± 4.54 (5점 척도 환산점수 2.42), '좌절 반응'의 점수범위가 7-35점으로 평균값은 16.55 ± 6.57 (5점 척도 환산점수 2.36)로 과로, 좌절반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p < .001$).

문제해결능력에서는 점수범위가 3-160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108.30 ± 15.44 로(5점 척도 환산점수 3.38)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으로 문제해결자신감은 점수범수

11-55점으로 평균값은 41.87 ± 7.73 (5점 척도 환산점수 3.80), '접근 회피양식'은 점수범위 16-80으로 평균값은 53.10 ± 7.92 로(5점 척도 환산점수 3.31) 나타났으며, '개인통제력'의 점수범위는 5-25점으로 평균값은 13.31 ± 3.94 로(5점 척도 환산점수 2.66) 나타났다($p < .001$)(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 문제해결능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생활스트레스는 성별($F=1.18, p=.032$), 전공만족도($F=6.67, p < .001$), 대인관계($F=17.9, p < .001$), 임상실습만족도($F=3.84,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학생은 평균값 90.31 ± 28.1 , 여학생의 평균값은 101.89 ± 25 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p=.032$). 학과전공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족'인 군의 평균값은 138.0 ± 52 , '매우 만족'인 군에서 평균값은 81.25 ± 27.1 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는 '매우 불만족'인 군에서 '매우 만족'인 군보다 생활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나쁜' 군의 평균값은 160.0 ± 34.2 , 대인관계가 '매우 좋음' 군이 87.0 ± 27.5 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는 대인관계가 '나쁜' 군이 대인관계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생활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족'인 군에서 평균값은 124.2 ± 49.2 , '매우 만족'인 군의 평균값은 84.1 ± 36.1 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에서의 생활스트레스 평균값은 '매우 불만족'인 군이 매우 만족, 만족, 보통인 군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임상실습스트레스에서는 전공만족도에서 '매우 불만족'인 군의 평균값은 69.0 ± 27.3 , '매우 만족'인 군에서 평균값 37.8 ± 14.2 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는 '매우 불만족'인 군이 '매우 만족'인 군보다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나쁜' 군의 평균값은 80.0 ± 20.0 , 대인관계가 '매우 좋음' 군은 43.9 ± 15.8 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는 대인관계가 '나쁜' 군은 '매우 좋음', '좋은' 군보다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Table 3. Difference of Life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Response, Problem Solving A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49)

Variables		Life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Response			Problem Solving Ability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90.31±28.1	1.18	.032	42.7±17.2	0.90	.236	74.2±34.2	0.20	.039	116.6±23.7	12.48	.001
	Female	101.89±25.0			46.73±15.9			89.8±39.2			106.2±11.9		
Age(yr)	≤20	107.50±23.3	4.31	.591	49.0±12.7	0.24	.872	88.0±48.0	0.69	.562	100.5±7.0	1.64	.181
	21-22	102.26±24.4			47.7±14.7			89.6±32.1			105.5±12.0		
	23-24	99.46±24.9			45.2±16.2			87.8±37.8			109.4±16.7		
	≥25	92.28±26.12			45.0±19.7			76.7±34.3			112.6±17.6		
Grade	Junnior	97.90±26.8	0.24	.423	45.6±15.6	0.01	.782	84.8±34.6	0.04	.493	108.3±18.3	2.44	.969
	Senior	101.34±25.5			46.3±16.8			88.8±34.4			108.2±12.1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a	81.25±27.1	6.67	<.001	37.8±14.2	4.72	<.001	69.8±33.2	2.71	.032	115.5±25.0	1.23	.023
	A little satisfied ^b	94.86±25.8		a,b<e	43.5±16.7		a,b<e	80.6±36.5		a,b<d	107.9±11.9		b,c<a
	Common ^c	104.0±20.7			47.3±13.9			93.8±34.0			107.3±115.0		
	A little unsatisfied ^d	112.3±16.9			54.0±12.3			102.1±24.1			107.6±17.3		
	Very unsatisfied ^e	138.0±52.0			69.0±27.3			96.6±5.1			102.2±12.4		
human relationship	Very good ^a	87.0±27.5	17.9	<.001	43.9±15.8	10.09	<.001	77.1±33.7	5.90	.001	118.7±25.0	4.37	.005
	Good ^b	96.7±22.0		a,b<d	42.5±14.7		a,b<d	80.7±33.3		a,b<c	108.2±11.8		b,c<a
	Usually ^c	117.1±20.2			53.6±14.4			107.3±32.9			104.5±11.6		
	Bad ^d	160.0±34.2			80.0±20.0			104.0±59.5			94.3±4.72		
Department Support Motivation	Consider credit	104.0±45.0	0.88	.478	52.5±19.2	1.59	.178	89.1±44.1	0.98	.420	101.1±11.3	2.93	.229
	Parental Invitation	103.2±29.8			50.6±17.4			92.9±35.6			101.1±11.8		
	Consider employment rate	100.4±27.7			45.5±12.7			83.8±30.4			109.3±13.5		
	Aptitude and Interest	93.3±21.7			41.8±14.7			80.1±33.2			112.0±17.6		
	Professional	102.5±27.6			46.2±19.7			94.2±44.1			110.6±14.5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ery good ^a	84.1±36.1	3.84	.005	36.8±17.2	3.31	.012	60.2±40.3	2.10	.083	124.6±39.8	1.58	
	Good ^b	92.2±26.1		a,b<e	42.4±17.0		a,b<e	83.9±36.5		a,b<e	107.3±12.3		
	Usually ^c	103.5±23.0			46.9±14.1			88.3±34.9			108.5±15.6		
	Bad ^d	109.4±19.9			53.3±13.9			102.2±28.9			107.2±13.3		
	Very bad ^e	124.2±49.2			61.2±26.2			68.2±30.3			103.7±13.7		
Grades	Top leve ^a	94.66±21.8	1.98		42.38±16.9	1.50	.222	86.8±32.4	0.60	.549	111.5±13.2	2.17	
	Midrange ^b	99.09±27.2			46.6±14.8			84.4±36.1			108.8±15.9		
	Lower level ^c	106.78±27.2			48.6±17.9			92.6±37.5			103.6±16.1		

a,b,c,d,e: Duncan test

스트레스반응에서는 성별에서 남학생은 평균값 74.2±34.2, 여학생의 평균값은 89.8±39.2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p=.039$). 전공만족도에서는 '약간 불만족'인 군의 평균값은 102.1±24.1, '매우 만족'인 군에서 평균값은 69.8±33.2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는 '약간 불만족'인 군이 '매우 만족'인 군, 보통인 군보다 스트레스반응의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32$).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보통'인 군의 평균값은 107.3±32.9, 대인관계가 '매우 좋음'인 군이 77.1±33.7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는 대인관계가 '보통'인 군과 '나쁨' 군이 '매우 좋음' 군과 '좋은' 군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문제해결능력에서는 성별에서 남학생은 평균값 116.6±23.7, 여학생의 평균값은 106.2±11.9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p<.001$). 전공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에서 평균값은 115.5±25.0, '불만족'인 군의 평균값은 102.2±12.4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약간 만족'인 군, '보통'인 군, '불만족'인 군보다 문제해결능력의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23$).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매우 좋음' 군의 평균값은 118.7±25.0, 대인관계가 '나쁨' 군이

94.3±4.72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는 '매우 좋음' 군이 '나쁨', '보통'인 군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3).

3.4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생활스트레스는 임상실습스트레스($r=.734, p<.001$), 스트레스반응($r=.591, p<.001$)과 양의 상관관계, 생활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r=-.369,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문제해결능력($r=-.327,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반응은 문제해결능력과($r=-.249, p<.001$)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Table 4).

3.5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Life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Respons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Variables	Life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Response		Problem Solving Ability	
	r	p	r	p	r	p	r	p
Life Stress	1							
Clinical Practice Stress	.734**	<.001	1					
Stress Response	.591**	<.001	.558**	<.001	1			
Problem Solving Ability	-.369**	<.001	-.327**	<.001	-.249**	<.001	1	

** $p<.001$

Table 5. Affecting Factors on Problem Solving Ability

Variables	B	SE	Beta	t/F	p-value
Constant	143.92	6.88		20.91	<.001
Gender	-7.70	3.08	-.198	-2.50	.002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312	1.52	.018	.204	.032
human relationship	-2.27	2.28	-.093	-.998	.080
Life Stress	-.115	.074	-.195	-1.54	.124
Clinical Practice Stress	-.133	.109	-.139	-.121	.788
Stress Response	.005	.042	.005	.003	.889

$R^2=.203, Adj R^2=.197, p<.001$

*Dummy variable: Gender(M=0, F=1),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Unsatisfaction=0, Satisfaction=1), Human relationship(Good=0, Bad=1)

귀분석을 적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를 Dummy변수로 전환하고,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 성별, 전공만족도의 변수를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회귀식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값은 1.924로 2에 가까워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905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105-1.636으로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을 예측변수로 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0.91$, $p<.001$), 문제해결능력을 수정된 R^2 는 19.7% 설명하였다.

성별($\beta=-.198$, $p=.002$), 전공만족도($\beta=.018$, $p=.032$), 대인관계($\beta=-.093$, $p=.080$)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전공만족도에서는 불만족보다 만족이,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나쁨보다 좋은 대인관계가 상대적으로 문제해결능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반응이 문제해결능력을 19.7%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 전공만족도, 대인관계, 생활스트레스, 성별 등으로 확인 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의 전체 평균값을 살펴 볼 때, 문제해결능력의 평균값은 108.30 ± 15.44 로 5점 척도로 환산 시 3.38점으로 이는 Kim과 Ko[26]의 연구의 3.8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도구나 평가환경 및 스트레스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평균값 수준을 확인해 본 결과 99.63 ± 26.12 점, 5점 척도로 환산 시 2.76점으로 Jeong과 Koh[27]의 2.58점(4점 척도)로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점수로 나타났지만,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in, Oh와 Kim[28]의 1.76점 보다는 높게 나타나 간호대학생이 타 전공 학생에 비해 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평균값이 45.99 ± 16.16 점으로 5점 척도로 환산 시 2.29점으로 나타나 Son 등[29]의 임상실습스트레스 2.51점 보다 약간 낮았다. 이는 임상현장에 따른 환경적 차이에 따라 스트레스 양상도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특성을 고려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로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실습생에서 오는 스트레스, 환경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나 Son 등[29]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생활, 임상 스트레스의 하부 요인인 학업 스트레스와 실습생 자신에 관한 스트레스, 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스트레스 반응은 전체 195점에 평균 86.74 ± 35.55 점으로 5점 척도로 환산 시 2.22점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로는 '피로'가 높게 나타났으며, '좌절'은 그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나 Park 등[30]의 연구에서 '불안', '피로'가 나타난 연구와 유사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31]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신체적 불편감이나 우울증 증상이 높고, 혈압상승이나 맥박수 증가 등의 현상을 보이며, 신체적 긴장감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 반응의 결과 심리적인 부적응을 일으킬 위험이 높으므로, 건강유지 및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스트레스 반응 정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와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차이에서는 전공만족도, 대인관계,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 Yu[32]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스트레스가 낮아 교우관계나 학

교생활에 만족이 높아지고[31], 전공만족도가 낮으면 부정적인 영향으로 스트레스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Jeong과 Koh[27]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추후 연구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반응과의 관계에서도 성별과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3.4학년의 스트레스 반응 점수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33]의 연구에서의 스트레스 반응 점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4 학년은 임상실습이나 전공과목 수업, 국가고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으로 보여지며[23], 이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반응 관리가 필요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에서의 차이는 성별, 전공만족도, 대인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과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선행연구 Han[34]의 연구에서도 유사하였다. 즉, 학과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가 높으면 문제해결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인 문제해결능력은 미래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대학생에게 문제해결능력 영향 요인인 변수들을 반영하여 전문적이고 적절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 과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과의 상관관계에서 생활스트레스와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과 문제해결능력과의 관련성은 모두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31]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해결능력 과 다른 긍정적인 변수와의 관계 등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차이점이 있었고,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상관관계 확인한 연구가 부족하여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과들로 살펴볼 때, 스트레스를 일으킨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고 그보다 먼저 긍정적인 생각 및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를 다룰 줄 알도록 스트레스 관리예방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중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19.7%로 나타났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며, 문제해결을 위해 동기화 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습 효과가 있어, 개인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32] 미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인관계가 매우 좋은 군이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 갈등과 소외감에서 비롯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을 하며, 대인관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문제해결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35] 원만한 대인관계가 형성되면,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며,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학업활동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최대화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운영 등을 모색하여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기회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문제해결능력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긍정적인 심리적 변수를 추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반응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전공만족도, 인간관계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과의 관련성에서는 성별, 전공만족도, 인간관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문제해결능력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활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반응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간호대학생의 높은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를 높일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일부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문제해결능력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J. H. Choi, "Factor Influencing Problem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Local Cities: Focu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5, pp.2473-2485, 2011.
- [2] M. H. Lee, H. K. Kim, S. H. Jung, I. O. Moon, "Effects of task performance style in nursing management practicum on problem-solving and nursing competency according to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7, No.1, pp.106-114, 2011.
DOI: <https://doi.org/10.11111/ikana.2011.17.1.106>
- [3] Stayt, Louise C. and Clair Merriman, "A descriptive survey investigating pre-registration student nurses' perceptions of clinical Skill development in clinical placem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33, No.4, pp.425-430, 2013.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2.10.018>
- [4] Liao, Ruixuo and Yanhui Liu, "The Impact of structural empowerment and psychological capital on competence among chinese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A Questionnaire Survey. Nursing Education Today*, Vol.36, pp.31-36, 2016.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5.07.003>
- [5] H. Selye,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1976
DOI: <https://doi.org/10.2106/00004623-195739020-00034>
- [6] Hannish A. Kathy: Job and Unemployment Research from 1994 to 1998: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55:188-220,1999.
DOI: <https://doi.org/10.1006/jvbe.1999.1722>
- [7] Statistics Korea, .Stress level (school life, population over 15 years old), <http://www.nso.go.kr>, 2019.
- [8] S. Y. Chu, S. M. Im,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undergraduates: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roblem-focused coping", *Korean Youth Society*, Vol.17, No.2, pp.309-332, 2010.
- [9] Y. S. Kang, S. K. Hwang,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 7, pp.3301-3309,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7.3301>
- [10] K. N. Kim, "Affecting factors on competence of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2, No.2, pp.55-65, 2014.
DOI: <http://doi.org/10.17547/kjsr.2014.22.2.55>
- [11] Y. J. Kim, Comparative study on the stress response of nurses working on psychiatric wards to that of nurses working on general wards the purpo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25, No.3, pp.399-418, 1995.
DOI: <https://doi.org/10.4040/jnas.1995.25.3.399>
- [12] K. S. Han, "Self 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ymptoms of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3, pp.585-592, 2005.
DOI: <https://doi.org/10.4040/ikan.2005.35.3.585>
- [13] J. S. Yoo, S. J. Chang, E. K. Choi, J. W. Park,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8, No.3, pp.410-419, 2008.
DOI: <https://doi.org/10.4040/ikan.2008.38.3.410>
- [14] T. J. D'Zurilla, A. M. Nezu, Social problem solving in adults. In P. C. Kendall (Ed.),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75 therapy* Vol.1, pp.201-274. New York: Academic Press, 1982.
DOI: <https://doi.org/10.1016/b978-0-12-010601-1.50010-3>
- [15] H. U. Im, D. K. Lee, H. J. Park, "Korean version of the Troubleshooting Questionnaire". *Special Symposium on Korean Counseling Psychology*, Unpublished. 2002.
- [16] J. S. Yu, S. H. Hwang, Y. J. Choi, "Research article: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3, No.4, pp.510-517, 2013.
DOI: <http://doi.org/10.2307/2136617>
- [17] I. S. Park, "The effect of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ccm program solving ability and nursing competency",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Vol.11, No.2, pp.15-25, 2017.
DOI: <http://doi.org/10.18014/hsmr.2017.11.2.15>
- [18] M. Synder, *Independent nursing interventions*, 2nd edition, Albany, NY: Delmar Publishers Inc, 1992.
- [19] S. L. Kim, S. J. Joung, N. M. Sin, H. Y. Sin, M. S. Kim, S. J. Lee, "Resilience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Vol.22, No.1, pp.60-69, 2010
- [20] O. J. Park,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purpose",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18, No.3, pp.240-250, 2009
- [21]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pp.175-191,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2] J. S. Yoo, S. J. Chang, E. K. Choi, J. W. Park,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8, No.3, pp.410-419, 2008.
DOI: <https://doi.org/10.4040/ikan.2008.38.3.410>
- [23] K. B. Koh, J. K. Park, C. H. Kim, S. H. Cho, "Development of the stress response inventory"

-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 Association*, Vol.39, No.4, 2000.
DOI: <https://doi.org/10.1097/00006842-200107000-00020>
- [24] P. P. Heppner, C. H. Peterson,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11, pp.213-218, 1982.
DOI: [https://doi.org/10.1016/0022-3999\(82\)90023-4](https://doi.org/10.1016/0022-3999(82)90023-4)
- [25] H. S. Joo, C. Y. Jyu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career decision status, career stres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4, No3, pp.73-97, 2012.
DOI: <https://doi.org/10.23840/AGEHRD.2012.44.3.73>
- [26] J. S. Kim, I. S. Ko, "The effects of learning styles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on problem-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4, pp.462-472, 2016.
DOI: <https://doi.org/10.5977/ikansne.2016.22.4.462>
- [27] Y. J. Jeong, C. K. Koh, " Effects of personality and coping behavi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4, No.4, pp.2234-1668, 2016.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6.24.4.296>
- [28] S. H. Min, H. S. Oh, G. H. Kim, "Dietary behaviors and perceived stress of universit students", *Journal Korean Society Food Culture*, Vol.19, No.2, pp.158-169, 2004.
- [29] Y. J. Son, Y. A. Song, E. Y. Cho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Stress Research*, Vol.18, No.4, pp.345-351, 2010.
- [30] I. S. Park, C. S. Ki, R. Kim, J. Kim, M. H. Park, "Stress, Anxiety and Fatigu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 Vol.11, No.2. pp.151-160, 2005.
- [31] B. I. Brunson, K. A. Matthews, "The type A coronary-prone behavior pattern and reactions to uncontrollable stress: an analysis of performance strategies, affect, and attributions during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0, No.5, pp.906-918, 1981.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40.5.906>
- [32] M. O. Yu,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tress coping styles on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3, pp.291-300, 2018
- [33] U. H. Cho,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 by the grade of stress in the nursing students effect of national examination on stress",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19, No.1, pp.64-73, 2005.
- [34] S. H. Han, "Factors affecting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5, pp.245-254, 2017.
DOI: <https://doi.org/10.14257/aimahs.2017.05.53>
- [35] J. H. Kim, K. J. Kwon, S. H. Seung,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4, pp.295-307, 2017.
DOI : <http://dx.doi.org/10.14400/JDC.2017.15.4.295>

김 종 임(Jong-IM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간호교육, 감염관리